



ESG SPECIAL

CMF (Color, Material, Finishing)  
디자인 트렌드를 선도하는  
프런티어를 찾아서!

여덟 번째 이야기.  
이시평, 김하늘 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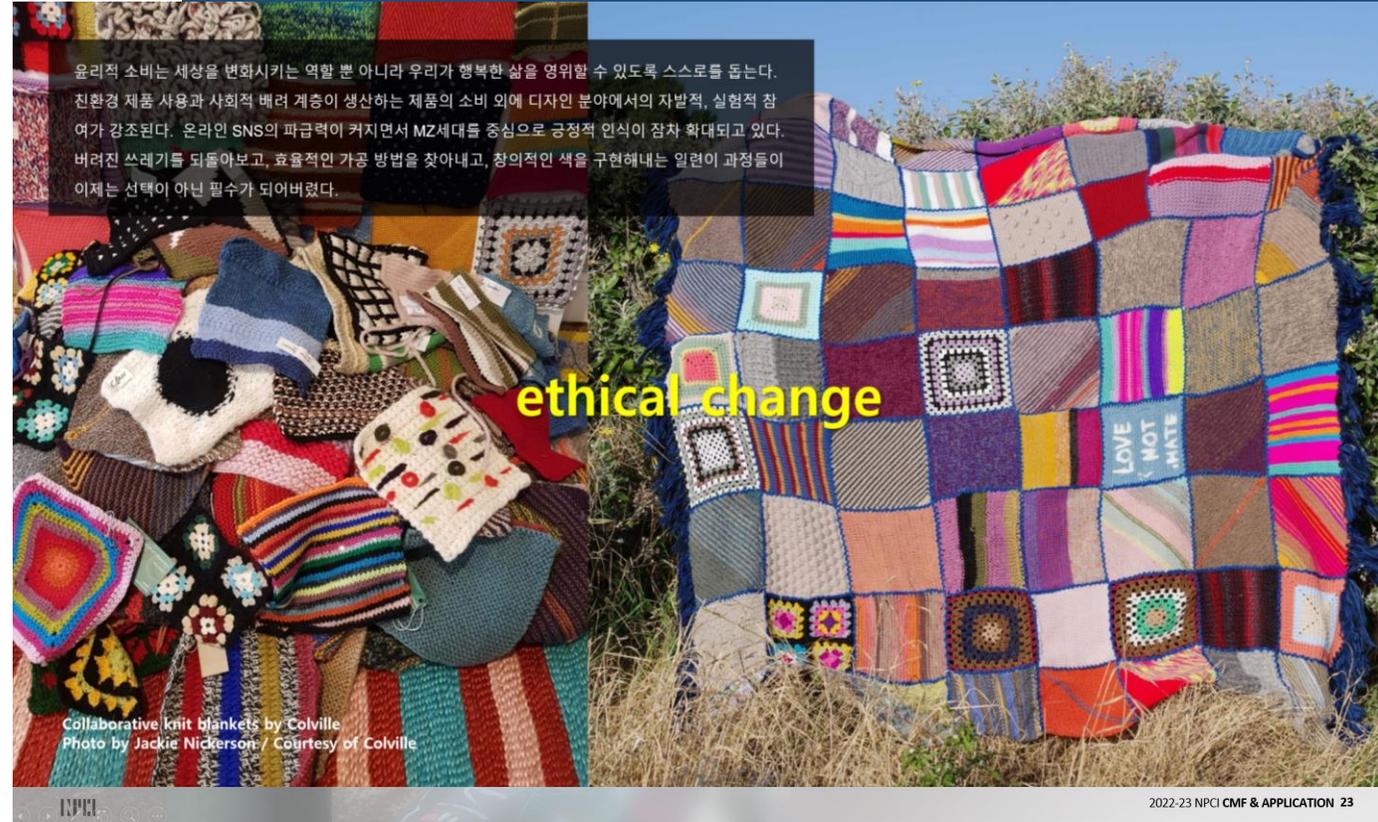




인천디자인지원센터 2층에는 매 시즌의 트렌드 컬러와 소재의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CMF 디자인 라이브러리가 있다. 인천디자인지원센터는 NSDS(노루서울디자인스튜디오)가 전하는 2022-23' CMF 트렌드 주제를 매월 하나씩 선정하여, 그 주제로 제안된 컬러와 소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기업, 디자이너, 작가의 제품과 작품을 이곳 CMF 디자인 라이브러리에서 전시하고 있다. 더불어 폭넓은 전시 감상을 위해 관련 인터뷰를 진행하고 온라인을 통해 소개하고자 한다. 특히, 이번 시즌에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디자인 경영의 중요성을 홍보하고자 ESG 스페셜로 기획하였다. ESG의 윤리적 기준에 따라 CMF 분야의 발전 가능성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디자인 브랜드 4곳을 선별 선정하여 관련 컬러, 소재의 오프라인 전시와 함께 인터뷰 내용을 순차적으로 연재할 예정이다.

CMF 디자인 라이브러리에서 제안하는 여덟 번째 트렌드 주제는 ‘윤리적 변화(ethical change)’이다. 윤리적 소비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 뿐 아니라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돕는다. 친환경 제품 사용과 사회적 배려 계층이 생산하는 제품의 소비 외에 디자인 분야에서의 자발적, 실험적 참여가 강조되고 있다. 온라인 SNS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MZ세대를 중심으로 긍정적 인식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버려진 쓰레기를 되돌아보고, 효율적인 가공 방법을 찾아내고, 창의적인 색을 구현해내는 일련이 과정들이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렸다.

밀라노와 런던 기반의 패션 브랜드 콜빌(colville)은 코로나19 사태 기간 동안 진행된 프로젝트를 통해 매우 의미 있는 콜라보레이션 결과물을 선보였다. 자선 활동을 위해 뜨개질하는 사람들로부터 소셜 미디어를 통해 사각형 니트를 기부 받을 수 있도록 공개 모집하였다. 이렇게 1년 동안 세계 각지에서 모인 기부 물품들은 각 지역 특성이 반영된 독특한 담요로 패치되어 제작되었고, 가정 학대로 고통받는 여성을 위한 구호 단체를 돕고자 경매에 부쳐졌다고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따뜻한 미담으로 전파되었고, 대표적인 윤리적 가치 실현의 본보기로 기억되고 있다.



\* NSDS(노루서울디자인스튜디오, NOROO Seoul Design Studio)는 시대 변화의 흐름을 논리적, 직관적으로 분석하여 실행 및 성공 가능성이 높은 창의적 영감과 실행 전략을 제시하는 Creative Knowledge Group 이다. 세계 각국의 역량 있는 크리에이터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끊임이 변화하는 고객의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감성적 가치와 창의적 영감을 전하고 있다.



## ESG를 선도하는 젊은 아티스트. ‘ethical change’와 이시평, 김하늘 작가

“ethical change”의 트렌드 주제 선정과 함께 쓸모없는 소재를 재활용해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젊은 아티스트 이시평, 김하늘 작가를 이번 시즌 세번째 인터뷰 대상으로 선정했다. 버려지는 것들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방식과 작품의 생김새, 그 쓰임은 달랐지만,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환경을 생각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디자인 또는 착한 예술이라 할 수 없지만, 시대와 사회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든 간에 앞으로는 더 많아져야 할 움직임이라는 사실은 틀림이 없어 보인다. 그 중심에서 있는 그들을 만나 더 많은 이야기를 들어본다.

Q. 두 작가님의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Lee : 안녕하세요. 작은 오브제 디자인부터 제품, 가구, 설치 작업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이시평이라고 합니다. 저는 서로 다른 소재나 색채, 마감 기법 등의 대비를 통해 시각적 이미지가 돋보이는 작품을 주로 디자인해 왔습니다. 최근까지는 철과 가죽을 주소재로 사용하였는데, 차가운 철재와 따뜻한 가죽 소재는 상반된 속성을 가졌음에도 함께했을 때 조화롭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흥미를 느꼈습니다. 2017년부터 두 소재의 관계성에 주목하여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고, 이후 서울디자인페스티벌, 디자인코리아, 키아프(KIAF), 독일 암비안떼(Ambiente) 등 다수의 전시에 참여했습니다.

A. Kim : 안녕하세요. 버려지는 소재를 지속가능한 디자인으로 살려내는 디자이너 김하늘입니다. 페마스크 필터들을 고열로 녹인 뒤 의자 모양의 틀에 굳혀 100% 재활용한 스톨을 졸업작품으로 제작했었고 현재는 Suburban People(서버번피플)이라는 디자인 스튜디오의 대표로서 팀원들과 함께 프로젝트 기획과 매니지먼트, 디자인 및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시평 작가

출처 : DDP디자인 페어  
사진 : 516스튜디오



상감(象嵌) / 이시평

Stack and Stack / 김하늘



김하늘 작가



Stack and Stack / 김하늘



상감(象嵌) / 이시평



Photo by 김원영

Q. 두 작가님은 공통적으로 버려지는 소재들로 작품을 만든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작품인지 궁금합니다.

A. Lee : 2018년도에 가죽 상감(象嵌) 테이블을 처음 제작했습니다. 2017년 여름에 지인의 공장에서 폐기되는 가죽 조각들을 보고 구상하게 되었지요. 온전한 새 소재인데도 규격품을 만들기엔 크기가 적당하지 않아 버려지고 있었어요. 한 달을 지켜보니 애매한 크기의 가죽들이 계속 폐기물로 나왔고 심지어 색상도 다양했습니다. 버려진다는 것은 용도가 상실되었기 때문이니, 용도를 바꾼다면 다시 쓰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죽 조각들을 모아 크기와 색상을 파악했고, 최소한으로 재단하여 테이블 상판에 활용되도록 패턴을 디자인했지요. 이후 상감기법으로 가죽 조각들을 단차 없이 상판 위에 접합하여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상감기법은 금속이나 도자, 목재에서 주로 사용되는 장식 기법인데요, 저는 이를 가죽 공예 및 가구 분야에 접목시켜 조각난 가죽들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A. kim : 저는 주로 가구 카테고리 작품들을 만듭니다. 폐자재가 가진 물성과 그에 어울리는 가공 방식을 연구해서 기능적인 가구 작품으로 재탄생시키죠. 마스크는 플라스틱 소재라 재활용되는 원리도 플라스틱과 비슷해요. 디자인 설계한 목형 거푸집 안에 마스크를 수천 장씩 넣고 뜨거운 열풍을 가해 녹인 후 거푸집 형태의 다리와 좌판 모양으로 차갑게 식힙니다. 그리고 서로 결합해서 스툴이나 의자 등으로 만들지요.

Q. 제한된 소재들로 작품을 창작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소재들마다 장단점과 특징도 다를 것 같고요.

A. Lee : 주로 철재와 가죽 소재를 작품에 사용해 왔는데, 어떤 부분에서 매우 상반된 속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 공정에 용이한 철재와 달리 가죽 소재는 수공예적 요소가 강하며, 스테인리스 스틸은 오래도록 녹슬지 않지만 베지터블 가죽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경년변화(에이징)를 맞이하게 됩니다. 철재와 달리 미세한 충격에 쉽게 상처가 생기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소재의 단점일 수도 있지만 저는 소재 본연의 특징으로 인식했고, 서로 다른 두 소재를 한 작품 안에 병치함으로써 대비를 통해 각기 다른 물성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A. Kim : 제가 사용하는 마스크 폐자재에서 아직 소재의 제한이나 창작의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습니다. 또 다른 형태로 작품을 만드는 방법도 무궁무진하고요. 다만 아직 마스크 소재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부족하기에 끊임없이 공부하며 저만의 매뉴얼을 구축하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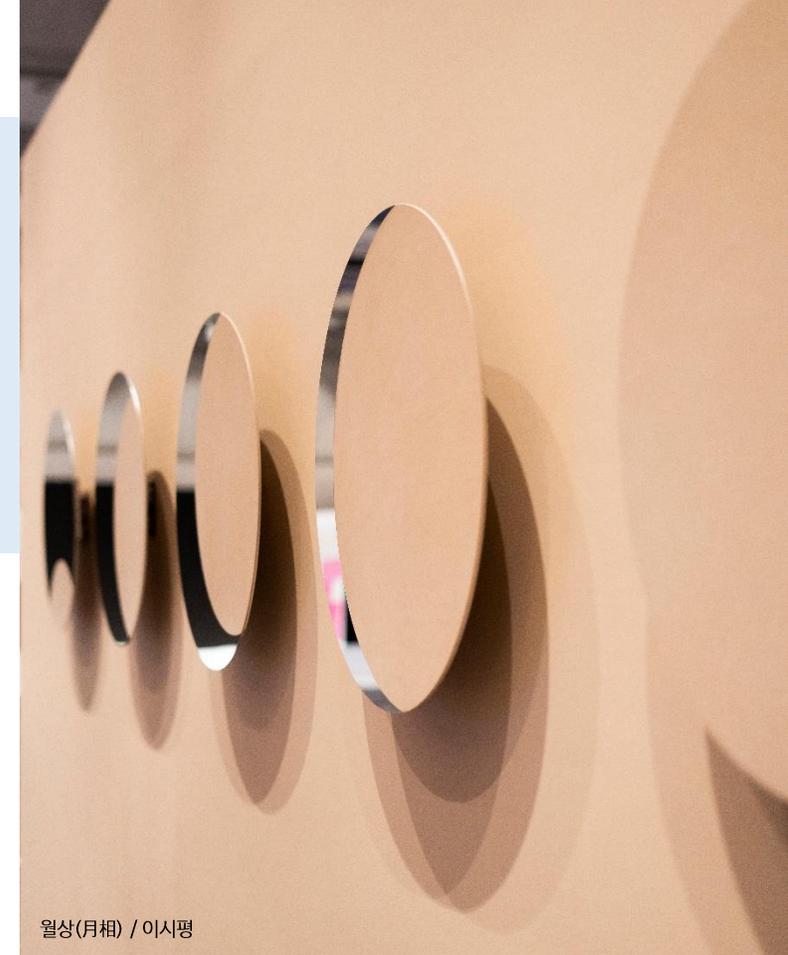


Q. 이시평 작가님은 업사이클링 작품 활동을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그리고 업사이클링(ESG 디자인)에 대한 본인만의 관점이 궁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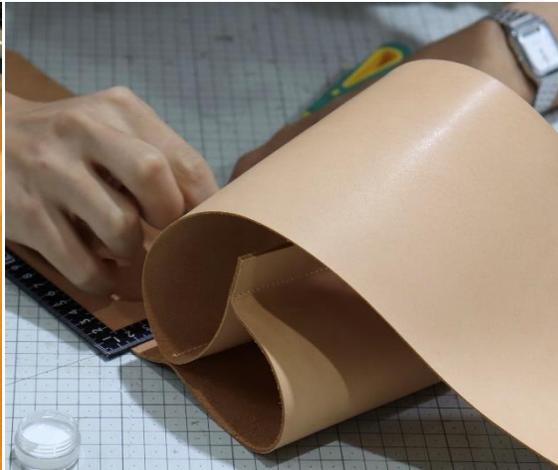
A. Lee : 사용하는 사람과 함께 나이 들어가며, 경년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죽은 참 매력적인 소재입니다. 그러나 가죽 공장에서 매년 약 700만 톤의 가죽이 버려진다는 기사를 접한 뒤로 환경에 대한 이슈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었죠. 현재, 많은 기업에서 비건 가죽 등 식물성 가죽 소재를 사용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저 역시 디자이너로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다만 업사이클링이 단순히 메시지 전달의 수단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효과를 내는지 주의 깊게 살피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신소재를 개발하거나 소재를 재활용하는 방식도 중요하지만 처음부터 친환경적으로 생산되는 소재를 사용하고 디자인 설계 단계에서 계획적 프로세스를 수립하는 것이 ESG 디자인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저는 이탈리아 가죽 협회 베라펠레(Vera Pelle)에서 인증한 천연 가죽만을 작품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죽을 위해 동물을 죽이지 않고, 화학가공을 거치지 않은 친환경 기법으로 염색하며, 배터블 가죽의 경우, 유해한 물질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그들의 확고한 가죽 생산 원칙입니다

Q. 이시평 작가님은 얼마 전 키아프(KIAF)에도 참여하셨지요. 출품작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A. Lee : 2021년도에 차고 이지러지는 달의 형태를 표현한 〈월상(月相)〉이라는 작품을 제작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강신재 예술감독님께서 작품을 보시고, 키아프에 참여하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하 공진원)을 위해 키네틱 아트 설치 작업을 진행해 달라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번 키아프는 국제적 아트 페어인 프리즈(FRIEZE)와 공동 개최되었던 만큼 공진원은 한국의 미를 보여줄 수 있는 분청사기, 달항아리 등의 작품 전시를 기획했고, 이에 맞춰 저는 〈월상〉 작품을 리뉴얼하여 부스 파사드에 설치했습니다. 기존 작품보다 사이즈를 키우고, 직접 모터를 설계하여 9개의 거울이 유유히 돌아가며 관람객들을 맞이하도록 배치했지요.



월상(月相) / 이시평



상감(象嵌) / 이시평





Q. 김하늘 작가님의 작품에서는 코로나19 사태와 친환경 트렌드라는 이슈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작품 활동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A. Kim : 저는 버려지는 마스크를 재활용해 만든 의자로 작품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진정성보다 이슈에 초점을 맞췄지만 작품을 만들면서 점점 더 재활용 작업과 환경 이슈의 심각성을 느꼈고, 대중도 공감하도록 전하고 싶었어요. 이를 위해 우선 저의 작업이 흥미롭게 다가가길 바랍니다. 재밌는 작업 안에 담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심각한 환경문제와 넘쳐나는 쓰레기에 대한 메시지를 공감해 주셨으면 하지요. 재활용 작품은 이러한 문제를 환기시킨다고 생각해요. 여러 분야의 수많은 분들이 노력하시는 것처럼 하나씩 바꾸면 분명 회복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멋있게 해 나가며 천천히 큰 변화를 일으키고 싶습니다.



Stack and Stack / 김하늘



bundle Series / 김하늘



Q. 마스크를 재활용한다는 점에서 바이러스 감염 노출이라는 위험성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A. Kim : 기존에는 실제로 사용 후 버려진 마스크를 수거해서 활용했어요. 이 작업이 대중에게 알려진 후 많은 호응과 응원을 받았지만, 2차 감염과 위생상 문제를 우려한 비판도 적지 않았죠. 그래서 잠시 작업을 중단했다가, 우연히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 방문한 마스크 제조 공장에서 힌트를 얻었어요. 제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버려지는 자투리 원단의 양이 톤 단위라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 폐기되는 마스크 자투리 원단을 활용해 작업을 이어가고 있어요.



Q. 두 분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색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의도대로 색을 표현하기 위한 나름의 노하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 A. Lee : 초기에는 색상이 각기 다른 가죽들을 조합하여 활용했는데, 최근 몇 년간은 베지터블 가죽 하나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지터블 가죽은 변화에 아주 민감한 만큼 여러 단계로 색상을 태닝시키기 쉽습니다. 톤온톤으로 태닝시켜 뽑아낸 가죽의 색상은 소재의 물성을 이용했기 때문에 이질감 없이 자연스러운 미감을 선사합니다. 사용자와 함께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색상 뿐 아니라 가치도 짙어지는 것이 가죽 소재의 본질이기도 하고요.
- A. Kim : 저는 마스크 폐자재의 색상을 그대로 활용합니다. 흔히 사용하는 화이트, 블랙의 마스크부터 핑크, 블루, 베이지 등 다채로운 색상의 마스크까지요. 염로나 페인팅을 더하는 행위는 재활용이라는 작업에 불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요. 조형적으로도 마스크의 색상들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Q. 가장 기억에 남는 전시 또는 작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A. Lee : 2020년, 갤러리 카페 '미식'에서 했던 전시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미식은 전시된 아트 퍼니처를 관람하는 것뿐 아니라 직접 사용하며 차를 마시는 공간이었기에, 공간의 취지에 맞도록 전시 기간 동안 관람객들로 인해 작품이 변해가면 더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철재와 가죽 소재를 대비시킨 상감 작품을 제작했고, 앉거나 물건을 두는 등 사람들이 주로 접촉하는 부분에 한해서 가죽이 자연스럽게 에이징되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햇빛, 땀, 빗물, 찻잔의 자국 등 여러 이야기들이 전시 기간 동안 작품 위로 남겨졌고, 의도했던 자연스러운 물성의 변화와 대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의 생각과 결과가 현 작업의 기초가 되었지요.
- A. Kim : 지난 7월 성수 LCDC에서 진행한 <Two Chairs>라는 전시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버려지는 마스크를 재활용해 명작 의자들을 오마주했는데, 우리 은행과 협업한 전시였죠. 기존에 작업하던 카테고리와는 전혀 다른 형태를 구현하는 일이 흥미롭기도 했고, 오랜 시간 준비한 만큼 많은 분들의 응원을 받아서 아직도 인상 깊게 남아 있어요. 저는 협업 프로젝트나 전시가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융기관과의 협업을 예고했을 때 지인이나 대중에게 생기는 물음표들이 더 재밌는 상상력과 기획을 끌어내 줘요.

Q. 두 작가님의 향후 활동 계획과 목표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 A. Lee : 현재 홍익대학교에서 가구디자인 석사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당장 많은 전시를 나가거나 다작하기보다 공부를 하면서 생각을 넓히려고 합니다. 어설 프더라도 지금 제 자신에게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작업을 하고 싶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만의 답을 찾고 싶어요.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조형 작업을 넘어서 형이상학적 작업을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 A. Kim : 예정된 프로젝트들을 멋있게 잘 해결해 나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순되지 않는, 진정성 있는 작업을 이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아가서는 더 많은 분들에게 저의 작업을 알리고, 더 많은 분들께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되고 싶습니다.



Stack and Stack / 김하늘



Two Chairs / 김하늘



Photo by 김원영

상감(象嵌) / 이시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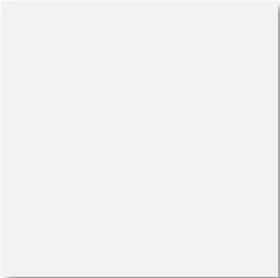


CMF 디자인 라이브러리에서 제안하는 여덟 번째 트렌드 주제 'ethical change'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컬러, 소재를 제안한다. 컬러는 버려지는 소재를 재활용하여 쓰임새 있는 디자인 소품으로 재 탄생시키는 개발 과정에서 영감을 얻었다. 마스크의 상징적 이미지 (Bundle White), 소재에서 보여지는 본연의 색감을 순수하게 투영시킨 스택핑크(Stack Pink), 스택블루(Stack Blue), 차고 이지러지는 달의 원초적 형상을 표현한 월상 아이보리(Moon Ivory), 강인하지만 부드러운 가죽의 소프트 레더(Soft Leather), 상감표현기법의 생명력을 불러일으키는 상감스킨(Inlay Skin) 6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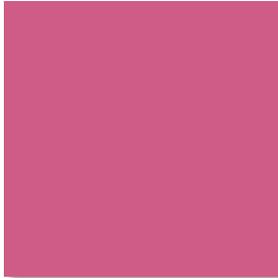
그리고, 주제와 연결하여 함께 추천할 만한 디자인 소재들을 인천디자인지원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재 라이브러리 DB에서 찾아 소개한다. 버려지는 헌 티셔츠들을 모아 세척 후 손 배틀로 직조하여 러그, 매트로 재탄생한 '나는 티셔츠였습니다'.(I was T-shirts), 타이어와 같은 폐고무를 분쇄하고 혼합하여 만든 재생고무소재(Reclaimed rubber pad), 커피자루를 업사이클링 디자인 소품으로 변화시킨 커피자루(Coffee sack), 곡물자루를 재활용해 만든 작은 손가방 헴프 린넨가방(Hemp Linen bag) 4종이다. 이상 추천 제안한 10가지의 트렌드 컬러와 소재 샘플들은 인천디자인지원센터 2층 쇼룸에 방문하면 직접 만나 볼 수 있다.

\* 트렌드 컬러 샘플은 22년 11월 중 전시 예정

번들 화이트  
Bundle White  
IDSC-BW011-22C



스택 핑크  
Stack Pink  
IDSC-PV008-22C



스택 블루  
Stack Blue  
IDSC-BL014-22C



나는 티셔츠였습니다.  
I was T-shirts  
FAB-A063



재생고무패드  
Reclaimed rubber pad  
RUB-A004



월상 아이보리  
Moon Ivory  
IDSC-YB018-22C



소프트 레더  
Soft Leather  
IDSC-BL015-22C



상감 스킨  
Inlay Skin  
IDSC-RE014-22C



커피자루  
Coffee sack  
FAB-A075



헴프 린넨가방  
Hemp Linen bag  
FAB-A088



IDSC COLOR LIBRARY  
Design Color Thema Zone



